



2025년 3월

소그룹 참가자용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6:2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가볍게 근황토크**

- ① **【기초】**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눠봅시다. 없다면 ‘**쥐어짜서**’ 이야기해봅시다.
- ② **【고급】**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혹은 생각이나 성경구절 등) 있다면 나눠봅시다.

▶ **오늘의 성경 읽기 _ 창세기 47장 1-10절**

-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 **in & out - 말씀 안으로 & 삶으로**

마귀의 전략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룻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을 넣었더라 ... 요한복음 13장 2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 ... 요한복음 13장 27절

마귀는 자신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불어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편견이나 선입견은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할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은 모든 상황이나 사람을 쉽게 규정하게 합니다.

- 1) 사람들은 날씨가 조금 흐리면 “아, 오늘 날씨가 안 좋네.”
- 2) 반대로 맑은 날이면, “오늘 날씨가 좋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일까요?

녹조가 가득한 강이나 바다에 태풍이 불면, 대지를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비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비가 없으면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고 어느 지역은 사막화를 막을 수 없기도 합니다.

나쁜 것의 좋은 면이 있을 수 있고, 좋은 것에 나쁜 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선악과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매사를 선과 악으로 ()입니다.

매사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공평하고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이 한다면, 공평하지도 않고 쉽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두 마디 말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한두 마디 말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쉽게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눔1】 ‘좋다’, ‘나쁘다’ 쉽게 말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나눠봅시다.

【나눔2】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선악을 가르려 하기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고 나눠봅시다.

과정

야곱은 이 상황을 좋다, 나쁘다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인생의 ()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 창세기 47:9

야곱은 자신의 삶을 좋다, 나쁘다, 나누는 것이 아닌 ‘나그네 길(pilgrimage)’로 묘사하며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후에 ‘험악한(difficult) 세월’이라 말하기는 하였지만, 불행이나 실패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 여름이 오면 열매를 맺고,
- 가을이 오면 거두고,
- 겨울이 오면 쉼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과정입니다.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눔1】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눔2】 우리가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고 규정할 때,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가볍게 근황토크

- ① **【기초】**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눠봅시다. 없다면 '쥐어짜서' 이야기해봅시다.
- ② **【고급】**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혹은 생각이나 성경구절 등) 있다면 나눠봅시다.

▶ **오늘의 성경 읽기** _ 창세기 48장 10-22절

-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 **in & out - 말씀 안으로 & 삶으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과 보내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하여 이르되 ... 창세기 48장 15절

야곱이 마지막에 무엇을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했습니다.

축복과 신앙고백

누가 축복을 하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가족을 위해 한 일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 돌아오매 ...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은 오로지 축복을 하기 위해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축복은 결국 ()의 표현이자, ()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에서는 야곱을 한 줄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 히11:21

야곱이 믿음으로 한 일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 안에 믿음과 순종이 다 들어있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족, 친구, 지인, 성도들에게 직접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자녀들을 끌어안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눔1】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축복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신, 상처, 실망 등)

【나눔2】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축복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자 에브라힘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던 전통과 반대의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자는 므낫세예요!” (18절)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19절)

틀에 박힌 질서를 깨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틀에 박힌 질서를 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장남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고,
-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적용

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득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며 신뢰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나눔1】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틀에 갇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나눠봅시다.

【나눔2】 하나님이 세상의 틀에 박힌 질서를 깨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묵상해봅시다.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마치나요?】

-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모임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 왜 기도 제목을 나누나요?**

▶ 기도제목을 보고,

함께기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보기도팀에도 요청도 가능)

▶ 기도제목을 보고,

다음 모임에서 더 관심 있게 다가가 물을 수 있습니다.

▶ 기도제목을 보면

현재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기도제목이

기도제목이 출석체크를 대신합니다.